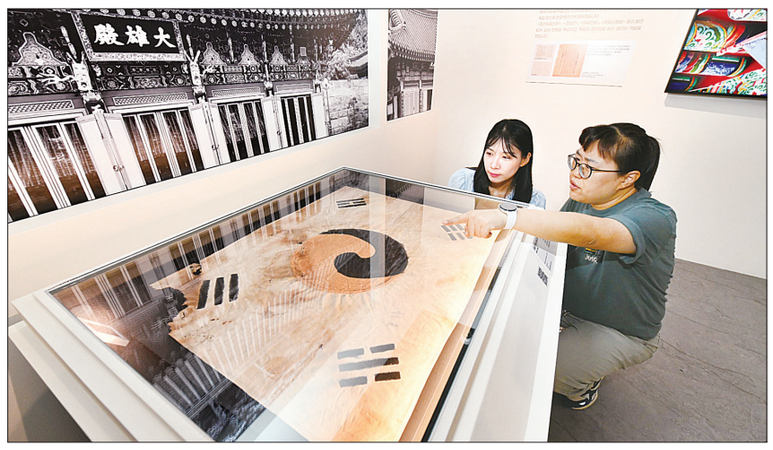
‘진관사 태극기’ 원본, 덕수궁서 만난다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
덕수궁 돈덕전서 10월 12일까지
‘환수’ 안중근 유묵 등 110점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에서 전시되는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 태극기’ 원본을 비롯한 항일유산 110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일제강점기·광복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담은 항일 독립유산이 품고 있는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자주구국의 유산 △민중함성의 유산 △민족수호의 유산 △조국광복의 유산 △환국의 유산의 5부로 구성된다.

전시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태극기 배지의 원본이자,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인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비롯해 110여 점의 항일유산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다. 당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됐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3·1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함께 2024년 7월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으로, 의병을 체포하고 서신을 강탈했던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말 의병 관련 문서’를 비롯해 △지난 4월 개인소장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인 국가등록문화유산 ‘미사일록’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인 ‘한일관계사료집’ 등이 처음으로 국민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 8월 5일 국가유산청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차주영 배우와 함께 특별전 전시 유물을 소개하는 ‘빛을 담은 항일유산’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한국어 해설자로 참여한 차주영 배우는 이번 특별전 전시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성해설(오디오 도슨트)로도 참여해 국내외의 관람객들이 항일유산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전국 곳곳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 근현대역사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울산박물관, 목포근대역사관 등 총 4개의 지역 박물관에도 전시 부스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제의 강압과 억압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항일유산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이자 정신이며 우리 국민의 정체성으로 미래세대에 계승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전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광복의 참된 의미와 항일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동국대서 펼쳐지는 ‘2025 불교문화대전’

조계종 주최로 9월 9~10일 개최
주석 스님, 최태성 강사 강의 등
인문·명상·문화 프로그램 ‘다채’
동국대 취업박람회와 연계 진행

인문학 강의와 명상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에서 2025 불교문화대전 ‘天上天下 You Are the Only On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교문화대전은 조계종이 주최하고 동국대·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공동 주관한다.

2025 불교문화대전은 기존의 공연·전시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국대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선명상을 비롯한 불교문화콘텐츠를 매개로 청년들에게 ‘마음의 쉼’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교문화대전은 불교 인문학 및 선명상 강연, 불교문화 체험 부스, 명상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리며 개막식 후에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불교 역사를 통해 보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9월 10일 오후 2시에는 (재)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당신은 소중한 존재(You Are the Only One)’를 주제로 선명상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불교문화 체험 부스는 동국대 팔정도 주변 법학관 일대에서 운영되며 △선명상 체험 △지화 연꽃 만들기 △출가 상담 △사찰음식·템플스테이 홍보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팔정도 광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명상 음악회가 열려, 국악·재즈·클래식·명상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2025 불교문화대전이 많은 분들에게 불교문화를 통한 마음의 쉼과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문화가 다양한 세대와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2020년 시작된 불교문화대전은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조계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를 선보여 왔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라다크 조캉사원 중창 격려

8월 3일 재건 부지 기공식서
직접 초석 놓고 축원·격려


라다크 조캉사원에 초석을 놓는 달라이라마.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북인도 라다크를 방문 중인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라다크 불교의 중심지인 ‘라다크 조캉사원’의 중창불사를 직접 격려했다. 지난 8월 4일 티베트 관련 뉴스를 전하는 ‘파율 닷컴’은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특별 보도했다.

라다크 수도 레의 중앙시장 근처에 소재한 조캉사원은 1957년 라다크 왕국 왕자이자 전 주몽골 인도 대사였던 바쿨라 린포체가 창건했다. 이 사원은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라다크의 불교신자들의 티베트 순례가 차단되자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성지로 꼽히는 티베트 라싸의 조캉사원을 본떠 건립됐다.

특히 1962년 라싸에서 조성해 이운한 석가모니 불상을 본존불로 봉안하면서 이후 라다크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이상 기후로 인해 법당과 요사채 등에 붕괴 위험이 생기면서 라다크 불교협회는 사원의 중창불사를 결의, 법당을 새롭게 건설하게 됐다.

8월 3일 오전 재건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한 달라이라마는 직접 초석을 놓았으며 전통적인 기도의식 등으로 재건될 장소와 참여자들을 축원했다. 달라이라마는 “새롭게 중창되는 이 사원은 단순한 예배 장소나 순례지로 재건될 뿐만 아니라 불교철학, 논리, 그리고 토론을 위한 ‘학습의 중심지’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식 후 달라이라마는 조캉사원이 재건되는 동안 사용될 불교센터를 방문했으며, 한동안 라다크에 주재할 것으로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대법원, 마하보디사원 청원 심사

보드가야 사원법 헌법 유효성 다툴 전망

성도성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에 희망의 빛이 비췄다. 지난 8월 7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의 현지 언론들은 인도 불교계의 오랜 청원에 대해 대법원이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마하보디 사원은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보리수나무와 마하보디 대탑 등의 성지들이 모인 사원이다. 그러나 이 사원은 1949년 제정된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운영법에 따라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인도 불교계는 오랫동안 이 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 및 개정을 요청해 왔고 올해 초부터는 청원과 함께 단식 투쟁과 연좌시위 등을 이어가며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인도 대법원은 6월 30일 이와 유사한 별도의 청원심리를 기각하고 청원인에게 고등법원에 다시 제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최근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인도 대법원은 8월 4일 인도 중앙행정부와 관련당국에 통지문을 발송, 1949년 보드가야 사원법의 헌법적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법원 결정에 인도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시킴주 종교부 장관 소남 라마는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불교도들에게, 마하보디 사원의 진정한 대표권이 불교에게 있음을 보여 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미륵도량 설두산 +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